

문학교육 목표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고등학교 문학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전한성(동국대)*

<목 차>

- I. 문제제기
- II. 문학교육 목표의 적정성
- III.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학'의 목표 분석 및 비판
- IV. 문학교육 목표의 개선 방향

<국문 초록>

문학교육의 목적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인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을 가르쳐야만 하는 이유라면, 목표는 그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의 설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학교육의 목표는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목표가 교육과정 설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7차 문학교육과정과 2007 문학교육과정을 목표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하여 비교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목적과 목표가 혼동된다는 점, 문학영역의 목표가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위계의 측면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점, 다른 과목과의 연계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목표의 체계적인 진술이 부족하다는 점, 목표 진술이 중복된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학교육의 목

* 동국대학교 국어교육 박사수료, 현재 동국대 강사

표 적정화를 위해 양적 접근 방식을 통해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목표’ 진술은 목적을 전제하여 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문학교육의 ‘목표’의 강조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문학교육의 이념 및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목표의 체계적인 조직화를 위해서는 통합성(coherence), 위계성(articulation), 계열성(sequence)의 원리에 근거하여 목표의 범주들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목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료해야 한다. 이러한 양적 접근을 통한 대안 외에 질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도 목표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문학교육의 이념과 방향성, 인간 삶을 이해하는 성찰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문학교육, 문학교육과정, 목적, 목표, 적정성, 통합성, 위계성, 계열성

I. 문제제기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누구에게나 익숙하다. 그러나 막상 문학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보면 선뜻 답하기 쉬운 일은 아니다. ‘문학은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인생의 반성적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무성의한 말인지 알 수 있다. 일례로, ‘소설은 인생의 해석이다(W.H 허드슨)’라는 유명한 정의를 떠올려보자. ‘인생의 해석이다’라는 술부를 고정시킨 채 주어를 바꾸어보면 어떠한가. ‘음악은’, ‘역사는’, ‘철학은’ 등 소설을 대체할 만한 주어는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소설은 인생의 해석이다’라는 표현은 소설을 해명하는 고유한 정의가 될 수 없다.¹⁾ ‘소설은 가공의 역사이다(R.웰렉 A.워렌)’, ‘소설은 인생의 회화이다(P. 러복크)’, ‘소설이란 산문체의 가공적인 이야기에 의한

1) 한용환, 『소설의 이론』, 문학아카데미, 1995, pp.47~69. ‘소설이란 무엇인가’ 참고.

인생의 해석이다(A. 벡커)' 등의 말도 역시 그들의 학문적인 권위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더라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문학은 인생의 해석이니,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총체적 산물이니 하는 것들 역시 나름대로 문학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문학적 현상을 총체적으로 포괄하기에는 뭔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그동안 문학의 근간이 되는 '인간'이나 '세계', '경험', '진리' 등을 내세워 '문학'을 지나치게 신비화해 온 경향이 있다. 일부에서는 물질만능주의로 인간소외 및 여러 병리병폐 현상을 겪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문학의 인간적 가치를 내세우며 문학교육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시나 소설뿐만 아니라, 신화나 민담과 같은 고전 등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원형적 인간성을 회복해야한다고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인간들은 인간성의 본질, 분열과 갈등 대신에 화해와 조화를 꿈꾸는 전인격적인 실체인가. 이에 대해 회의론을 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듯싶다. '동명왕편', '토끼의 재판', '심청전' 등에 나타나는 주인공을 제외한 인간 군상들은 모두 잔악하기 그지없다.(김중신, 2004:5) 그러한 인물들의 잔악한 실상을 보고 있으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뱃머리를 돌리는 게 오히려 인간 심리의 원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김중신은 문학 속 주인공들의 삶은 인간세계의 질서 유지를 위한 계도적 표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런 시각이라면 문학이 진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인정되더라도 문학적 가치가 반드시 교육적 가치로 환원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듯싶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문학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문학교육의 목적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교육'이란 개념은 기술적이든 기능적이든 조작적이든 '변화'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²⁾ 교육의 목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 자신이든 그를 둘러싼 사회·문화든 발전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교육의 목적에 빚대어 문학을 가르치려 하는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그 답은 예상 외로 간단히 도출된다. 문학의 본질내지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가르치려 하는 이유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 자신이든 그를 둘러싼 사회·

2)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는 길형석 외, 『교육의 이해』, 교문사, 2006, pp.17~20. 참고

문화를 발전적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 때문이다.(자연스럽게 연결, 문학문화 설명) 우리는 암묵적으로 문학의 속성이 이러한 ‘변화’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데 동의해 왔다. 그러나 문학이 학제화된 이후 우리는 문학을 즐기고 자기화하는 문학·문화의 생활을 누려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도 일상에서 또는 사회에서 문학을 살아있는 경험의 세계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문학교육의 난점은 바로 그러한 데서 비롯한다. 학교에서 배운 문학이 대학입시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는 오늘의 현실은 문학생활과 일상생활의 단절을 초래하였다. 문학·문화의 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학교육의 연속성내지 평생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문학교육의 목적이 제대로 조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학교육의 목표가 적정화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국어교육과 문학교육의 목표 관계를 규명³⁾하여 바람직한 문학교육 목표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문학교육 목표의 적정성

문학교육 목표의 적정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목표’와 ‘적정성’에 대한 개념을 밝히는 데 있다. 먼저 ‘목표’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자. 흔히 목표는 목적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목적과 목표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어 그 정의를 선뜻 내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목적은 왜 해야만 하는가 하는 대상에 대한 이유이고 목표는 그것을 어떻게 도달해야 하는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항상 목표의 상위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 김창원(1992)에서 밝힌 아이즈너의 aims와 goals와 objectives의 구분은 참고할 만하다. 아이즈너에 의하면, aims는 어떤 그룹이 갖고 있는 가치관 또는 방향성을 밝히

3)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학교육의 목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는 일반적인 선언과 비슷하다. goals는 어떤 과목이나 프로그램에 따르는 지향점을 기술한 것이다. 이것은 예상되는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교육과정 설계자에게 교육과정의 내용을 선택하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objectives는 교육을 받은 후에 학생이 어떤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출발점과 도달점에서의 행동 차이를 명료하게 드러내주는 특징이 있으며, 이들의 관계는 aims에서 goals가 도출되고, goals에서 objectives가 도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aims, goals와 objectives 사이에는 의도, 계획, 지향점과 행동, 결과, 변화라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전자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면 후자는 공학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전자와 후자 사이에는 양적인 차이 곧 범위와 수준의 차이도 존재한다. 그렇게 볼 때 aims는 문학교육 일반의 범위에서, goals는 보다 좁은 문학교과의 범위에서, objectives는 구체적인 문학제재의 교수학습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다. 범위가 좁아지면서 수준은 깊어진다. 이 때문에 이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구분하기보다 aims, goals는 ‘목적’이라고 하고 objectives는 ‘목표’로 부르는 방법이 일반화되어 있다(김창원, 1992:346, 재인용). 이렇게 볼 때 문학교육을 수행하는 이유 혹은 중요성은 ‘목적’이고, 문학수업을 통해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상태는 ‘목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로서의 문학이 일상에서의 문학·문화생활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연속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목표 양면을 모두 포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적정성’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자. 교육과정 적정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교육내용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⁴⁾ 교육내용에 대한 적정성 논의는 주로 학습내용의 과다, 학습하기 어려운 내용, 교과목 위주의 분과교육, 기초교육과 일반 교육의 소홀, 전인교육과 인간교육의 미흡, 이수과목 축소, 학습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교과목의 조정, 개발과정의 효율화 등에 있다.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하여 적정성의 개념이 관련 연구들에서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송현정, 2006:31).

-교육내용을 적정화한다는 것은 학습 내용 범위의 조정, 학습내용 수준의

4) 이에 대한 논의로는 송현정(2006), 김재춘(2003), 양미경(2004), 황규호(2004) 등이 참고할 만하다.

조정,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는 것이다(김재춘, 1997).

-교육내용을 적정화한다는 것은 교과에 따라서 우세한 부분을 중심으로 양적 혹은 질적 조정을 하는 것이다(이돈희, 2004).

-교육내용의 적정화는 교육내용을 줄이자는 의미이다(한승희, 2004).

-교육내용을 적정화한다는 것은 교육내용의 삭제, 첨가, 약화, 강화, 학년(수준)간 이동을 통해 그 범위와 수준을 적절히 조정하여, 학습자의 학습능력, 적성, 진로와 합치시키기 위한 것이다(홍후조, 2004).

-교육내용 적정화의 두 가지 목적은, 첫째, 학습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 함으로써 학습자가 과도한 학습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바람직한 교육적 경험의 회복 또는 바람직한 교육적 경험의 제공을 뜻한다(황규호, 2004).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적정성 개념은 교육내용의 범위와 수준 그리고 학습자의 교육경험의 깊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목표에 대한 적정성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문학교육 목표의 적정성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국한하여 정의한 내용을 살펴 추론해 볼 수 있다.

교육내용을 적정화한, 국민 공통 기본교육 기간에 모든 학생들이 교과의 선택권 없이 반강제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목의 내용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⁵⁾(송현정, 2006:28~29, 재인용)

위에서 눈여겨 볼 것은 교육내용의 적정화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목의 내용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는 대목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교육내용의 적정화는 교육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교육내용은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목표의 적정성이 전제되어야만 구조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문학교육 목표의 적정성은 교육내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양적 기준에는 목표의 범위와 수준

5) 본고에서의 밑줄은 필자가 모두 임의로 그은 것임을 밝힌다.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질적 기준은 교육 목표의 대상 즉 학습자가 어느 수준까지 내면화를 이루고 사회·문화에 참여하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학·문화의 생활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준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질적 기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므로 여기서는 양적 기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양적 기준에서는 교육 목표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우선 고려될 수 있는 것이 범위의 문제이다. 교과로서의 문학교육의 목표는 목적의 측면을 포괄해야 함을 앞서 살펴보았다.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생각해본다면, 목표의 범주는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문학교육과정의 목적은 문학교육의 본질에 대해 어떤 사고를 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해본다면, 크게 ①인간중심 문학교육관, ②언어중심 문학교육관, ③문학중심 문학교육관, ④문화중심 문학교육관, ⑤학문중심 문학교육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김창원, 1992:348). ①에서는 학습자의 인지·정의적, 사회적 경험과 능력을 중시하는 목적이 설정될 수 있다. ②에서는 문학적 담화의 이해와 감상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언어사용능력을 중시하는 목적이 설정될 수 있다. ③에서는 문학의 예술성과 문학 작품 자체의 구조에 대해 중점을 두는 목적이 설정될 수 있다. ④에서는 문학을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기능, 역사성, 문학적 소통의 체계를 중시하는 목적이 설정될 수 있다. ⑤에서는 문학을 지식의 구조로 파악하기 때문에 인문학의 하위 범주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문학교육에서는 이러한 관점들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교육과정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위의 교육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⁶⁾에 따라 목적의 방향이 설정되는데, 목적이 세워진다면 목표는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세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남민우(2007:131)에서는 이회복(1963)과 김창원(1992), 김대행(1997)이 제기했던 국어과 및 문학교육의 목표 설정 기준체

6) 문학교육의 목표는 어느 한 쪽의 의견에 의해 주도되어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회적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설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문학교육과정 설계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의 문이다.

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섯 가지 목표로 범주화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하다.

① 사회적 요구 관련 목표 :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능력)과 가치 관련 목표로서, ‘기능’은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에 요구되는 언어능력을 말하며, ‘가치’는 민족주의(전통적) 가치와 민주주의(근대적) 가치로 대별한다. 민족주의 가치들은 ‘공동성, 정체성, (민족)주체성, 통합성, (민족 고유의)심미성’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적 가치들은 ‘인간존중과 자아실현, 자유와 권리, 평등과 정의, 박애, 질차존중, 진보와 발전’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② 개인적 성장 관련 목표 : 개인의 자아실현과 관련된 목표로서, 학습자 개인의 흥미, 상상력, 사고력, 창의성 등으로 대별한다.

③ 문화 관련 목표 :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과 창조 및 대중문화 이론 이후 강조된 문화 분석 능력 등으로 대별된다.

④ 타 교과(과목/영역) 관련 목표 : 문학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문학적 능력이 타 교과와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는 목표들을 의미한다.

⑤ 과목(문학교육) 고유성 관련 목표 : 좁은 의미에서 문학교육의 고유한 목표들을 의미한다. 문학에 대한 지식, 문학적 표현과 이해 능력, 문학의 가치화 등이 하위 목표들이다.

이러한 목표 범주는 그동안 교육과정 상의 문학교육 목표의 변천에서 특정 시기에 특정한 범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 왔다. 예를 들면, 교수요목기에는 ①이 중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정신’이나 ‘중견국민’이 국어과의 최종 목표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민족주의적 전통적 가치 관련 목표가 지배적 범주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3차 교육과정기에는 ‘이론’이란 용어⁷⁾가 등장하면서 ‘문학이론’ 관련 목표가 지배적 범주로 부상한다.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나 감상, 그것을 즐기는 태도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문학구조 자체에 대한 관심 비중이 늘어남으로써 타 교과 관련 목표나 사회요구 관련 목표의 범주는 줄어들게 된다. 4차 교육과정기 문학교육 목표 체계에서는 문학과 문화유산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⁸⁾ 과거의 교육과정기에 강조되었던 민족주의적 목표, 교양습득의 수단으로서의 문학에 관한 목표들은 간략화되고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상상력’, ‘인

7) 문학교육과정 용어에 대해서는 최지현(2006) 참고.

8) 문학교육 목표의 변천에 대해서는 남민우(2007) 부록을 참고.

간의 내면세계 이해' 등의 용어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다(남민우, 2007:135). 이는 여전히 문학 중심의 교육관이 강조되면서 타 교과와의 관련을 약화시켜 문학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를 지닌다. 6차에서는 '체계적인 작품 감상의 원리'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7차에서는 '문학능력'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한다.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정리해보면, 문학교육의 목표는 3차 이후 줄곧 ⑤과목 고유성 관련 목표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교육 목표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의 특정 범주에 치우쳐 목표를 설정할 것이 아니라, 통합성(coherence), 위계성(articulation), 계열성(sequence) 등의 원리에 근거하여 목표 범주와 수준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⁹⁾ 통합성이란 목표들이 내적으로 의미 있고 응축된 관계를 이루는 것을 가리키고 위계성이란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가 상호 규정하면서 분절되는 현상을 가리키며 계열성이란 선행 목표와 후행목표의 단계적 발달을 가리킨다(김창원, 1992:351). 위에서 제시한 목표의 범주들은 이러한 조직 원리에 의해 체계화되어야 한다.¹⁰⁾ 이 때 문학교육과정의 목표는 국어교육의 목표와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어과 교육과정 내 문학영역 목표와 심화과목으로서의 문학교육 목표 또한 유기적 통합관계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Ⅲ.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학'의 목표 분석 및 비판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과거 교육과정이 학교급별 목표가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초·중·고 국어교육의 성과를 총괄할 수 있는 국어과 교육의 목표 일원화를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도달해야할 교육

9) 물론 이 때 교육과 문학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목적 수립에 앞서 반드시 사회·문화적 합의가 뒷받침되고 목표의 범주에 문학교육에 대한 반성 내지 성찰의 범주를 설정한다면 어느 정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학교육의 목표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10) 통합성과 위계성, 계열성의 원리에 따른 목표 범주의 적정화에 대해서는 IV.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목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도달해야할 목표와 동일하다.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하 2007 개정안)에서도 이러한 목표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개정안의 국어과 성격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¹¹⁾

<성격>

앞부분 생략. '문학' 학습은 문학 작품을 찾아 읽고 해석하며, 문학 작품을 생산하는 학습 활동을 함으로써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향상되도록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국어 활동을 통한 사고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어활동을 즐기고 국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중등학교에서는 국어를 정확하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국어활동을 통한 고등사고력과 심미적 안목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국어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강조한다.

<목표>

국어활동과 국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사용 상황에 활용하면서 자신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
- 나.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11) 2009 미래형 국어과 교육과정이 많은 논란 끝에 공개되었다. 여기서 제안된 문학교육의 성격과 목표는 2007 개정안의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09 미래형 교육과정 국어과에서 중점적 변화를 보인 것은 <국어과 선택과목>의 경우 수준별로 재구조화하여, 종전의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언어 등의 과목이 '화법과 작문 I, II', 독서와 문법 I, II', '문학 I, II'로 개편되었다는 점이다. 그 외 문학 과목의 목적과 목표는 문학 언어를 중시하고 자아 성장과 심미적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2007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오랜 시간 공청회와 많은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2007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학교육의 교육과정 상의 목적과 목표를 살펴볼 것이다.

발전과 미래 지향의 국어문화를 창조한다.

국어교육 목표의 총론을 보면 우선 목적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앞서 밝혔듯이 교육과정의 목표는 목적의 내용을 두루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른다’는 진술이 국어교육을 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목적)가 될 수 없다. 이해하고 기르는 것은 과정의 도달을 의미하는 목표 측면의 성격이 짙다. 국어교육을 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진술이 담보된 뒤 그것에 대한 목표 진술이 뒤따라야 한다.¹²⁾

국어교육의 최종 목표는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국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어활동과 국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언어사용과 문법 그리고 문학영역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위목표의 ‘가.’에서는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라는 진술이 보인다. 이것으로 보아 국어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학교육이 필요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국어활동과 국어와 문학의 본질이 어떤 관련을 통해 총체적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관계 해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성격’ 항목의 밑줄 그은 부분을 통해 국어와 문학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상상력’과 ‘심미적 안목’이라는 용어를 통해 국어와 문학의 공통분모를 추출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목표 항목이 아닌 성격 항목을 통해 그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항목에서 이들의 관계가 적극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국어교육 목표 안에서 내용영역과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국어활동과 국어, 문학에 대한 목표를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과정의 내용영역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문학영역이 어떤 방식으로 국어활동, 국어와 연관성을 갖는지 그 해명이 필요하다. 다음은 심화 선택 과목 ‘문학’의 성격과 목표이다.

12) 국어교육의 ‘성격’ 항목은 국어과에 대한 성향을 언급하기보다 목표에 대한 진술을 상세히 풀어놓은 듯한 인상이다. 그러나 ‘성격’에서도 국어교육의 목적에 대한 뚜렷한 언급을 찾기는 어렵다.

<성격>

앞부분 생략. 문학은 인간과 사회 및 역사의 본질을 심미적 언어로 형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②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며 ③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그 가치가 있다. 학습자는 문학을 좋아하며 창의적인 언어 능력과 사고력을 기르고, 정서와 심미 의식을 함양하고 가치관을 확립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②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문학’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국어’ 과목 중 ‘문학’ 영역을 심화·발전시킨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⑤다양한 문학 경험과 활동을 통해 이해·표현 능력을 심화하여, 학습자가 바람직한 문학 주체로 성장하고 ①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에서는 ⑤다양한 문학 경험과 활동을 통해 이해·표현 능력을 심화하고, 바람직한 문학 주체로 성장하여, ①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사회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목표>

문학의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며 자아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 가. 문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능동적으로 문학 활동을 한다.
- 나.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하여 언어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다. 문학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향유하며,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문학 과목의 목표에서도 문학을 왜 교수·학습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¹³⁾ 목적을 전제한 체계적인 목표 진술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일단 목표에서 언급한 진술을 바탕으로 목표의 범주를 나누어

13) ‘성격’ 항목을 통해 문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문학교육의 ‘성격’과 ‘목표’ 항목의 진술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마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격’인 것처럼 보인다. 성격과 목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목표에서는 ‘문학의 올바른 이해와 폭 넓은 경험’, ‘문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문학의 가치’ 등의 용어가 눈에 띈다. 이로 미루어 보아, ⑤과목(문학교육) 고유성 관련 목표를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자아를 실현’이라는 용어가 보인다. 이는 ②개인적 성장 관련 목표와 관련된다. 셋째,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의 용어는 ①사회적 요구 관련 목표에 대해 알 수 있게 한다. 넷째, ‘공동체 문화의 발전’이라는 용어는 ③문화 관련 목표와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목표 범주들은 위의 ‘성격’ 항목의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하면 보다 소상히 알 수 있다. 3차 이후 줄곧 지배적이었던 과목 고유성 관련 목표 범주의 비중은 2007 개정안에서는 다소 줄어든 인상이다. 그 대신 개인의 성장 관련 목표와 사회적 요구 관련 목표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7차에서 강조한 문학능력 신장이 자칫 문학의 구조를 밝히는 일에만 함몰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문학이 우리의 생활과 연계된 실제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하위목표 다.에서 ‘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라는 표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개인의 성장 관련 목표와 사회적 요구 관련 목표 범주의 강화는 문학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문학·문화 생활의 고양을 이루기 위해 바람직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 과목의 ‘성격’과 ‘목표’의 항목을 살펴봐도 타 교과(과목/영역) 관련 목표 범주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문학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문학적 능력이 국어과 내의 다른 영역의 과목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국어와 그에 포함된 문학영역 목표의 관계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 문학과 다른 영역의 과목들의 유기적인 관계성 또한 해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문학교육 목표의 개선 방향

문학교육의 목표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적의 방향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현행 문학교육은 국어과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

다. 문학이라는 과목이 국어 과목과 별도로 독립된 교육과정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문학교육은 국어 교육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해야 한다. 따라서 “문학 교육은 문학능력의 신장을 통해 학습자의 체험을 확장시키면서 주체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을 길러 주며 언어를 통한 사유의 폭을 넓혀 줄 수 있어야”하고 “문학을 읽고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최미숙 외(2008:318)의 주장은 문학교육의 목적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2007 개정안에서 국어과 안에 있는 문학영역과 심화선택 과목인 문학 과목의 교육 목적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성격’이라는 항목에서 문학교육의 목적에 대한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학영역과 심화과목으로서 문학의 ‘성격’ 부분에서 목적과 관련된 진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과목 ‘국어’의 <성격>

-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향상되도록 한다.
-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국어 활동을 통한 사고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심미적 안목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심화 선택 과목 ‘문학’의 <성격>

- 개인의 자아를 실현한다.
- 다양한 문학 경험과 활동을 통해 이해·표현 능력을 심화한다.
-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
- 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그 가치가 있다.

위의 ‘성격’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2007 개정안에서 문학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심미적 안목을 바탕으로 언어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문학교육의 목적은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국어 발전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국어교육의 목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인간의 삶을 언어적으로 재구성한 문학의 세계를 거울삼아 자아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문학교육의 목적은 타당하다. 따라서 문학교육의 목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아실현’, ‘언어적 상상력의 이해와 표현’,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언어활동’, ‘삶과 문학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학을 배우는 학습자들을 염두에 두고 문학교육의 목표가 어떤 방식으로 적정화되어야 하는지 먼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문학교육의 목표가 적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양적 기준에 따른 목표의 범주와 그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문학교육의 적정화를 이루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추출할 수 있었다. 첫째, ‘목표’ 진술은 목적을 전제하여 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 때 문학교육의 ‘성격’은 ‘목표’와 통합하든 아니면 그 구체적인 속성이 잘 드러나도록 진술되어야 한다. ‘성격’은 문학교육의 특성과 문학의 교육적 가치 또는 문학교육의 경향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목적’과 ‘목표’를 두루 아우르는 포괄적인 면이 있기에 ‘목적’과 ‘목표’ 항목 사이에서 어떤 위계에 놓여야 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문학교육의 ‘목표’의 강조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문학교육의 이념 및 방향성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남민우(2007:131~136)에서는 교과 목표 설정의 항존적 기준 체계로서 다섯 가지 목표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①사회적 요구 관련 목표, ②개인의 성장 관련 목표, ③문화 관련 목표, ④타 교과(과목/영역) 관련 목표, ⑤과목 고유성 관련 목표 범주가 그것이다. 이러한 목표 범주는 지금까지 진술된 문학교육의 목표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교육의 ‘목표’ 진술은 이러한 범주를 포괄하되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과와 관련된 직접적인 교육관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표 범주들이 모두 한 학년에 걸쳐 교육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어 볼만 하다. 따라서 목표 범주의 강조점을 달리하여, 학년별 위계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성장 발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목표의 체계적인 조직화를 위해서는 통합성(coherence), 위계성(articulation),

계열성(sequence)의 원리에 근거하여 목표의 범주들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정안의 문학교육의 목표에서는 ④타 교과(과목/영역) 관련 목표 범주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아직도 문학 과목이 다른 과목과의 유연한 연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문학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문학적 능력이 국어과 내의 다른 영역, 과목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며 국어교육의 목표와 어떤 방식으로 그 맥락을 같이 하는지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한다. 문학교육의 궁극적 이유가 문학을 생활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법, 독서, 작문 등과 같은 국어과 과목뿐만 아니라, 도덕과 사회 등의 다른 교과와도 적극적인 연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목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료해야 한다. 현행 문학교육 목표의 내용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성격' 항목에서 진술되고 있는 목표 내용들은 중복이 심해 산만해 보이기가까지 한다. 목표 범주의 개념들을 명료하게 정의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합성, 위계성, 계열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조직하고 진술해내야 할 필요가 있다. 연역적인 방법으로, ①사회적 요구 관련 목표와 ③문화 관련 목표를 총론의 성격으로 제시한 뒤 하위 목표로 ⑤과목 고유성 관련 목표와 ④타 교과(과목/영역) 관련 목표, ②개인의 성장 관련 목표를 제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점층(혹은 귀납)적인 방법으로, ⑤과목 고유성 관련 목표, ④타 교과(과목/영역) 관련 목표, ②개인의 성장 관련 목표, ③문화 관련 목표, ①사회적 요구 관련 목표의 순서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목표 범주의 조직은 공동체의 합의된 문학교육관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문화적 현실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자아 실현과 관련된 목표로서, 학습자 개인의 흥미, 상상력, 사고력, 창의성 등으로 대별되는 ②개인의 성장 관련 목표 범주와 연관해서는, 문학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편승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도록 자아와 문학(허구) 세계의 경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반성으로서의 성찰을 도모하게 하는 추가적인 진술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에서의 문학교육이 대학입시용으로 그치지 않고 일상의 삶과 연계되는 지속성을 획득하여 문학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문학·문화 생활의 고양이가 가능해질 것이다.

문학의 핵심적 속성은 상상력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아실현의 자유로움이라 할 수 있다. 문학을 즐긴다는 것은 그러한 자유를 통

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문학을 가르치는 일은 학습자에게 그러한 자유를 체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의 속성을 곰곰 생각해보자면, 그 속에는 부정할 수 없는 억압의 기제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가 든다. 다만, 우리는 그러한 강제적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규범이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문학을 교육의 제도권으로 들여왔을 때 문학교육이란 자율과 억압이 끊임없이 상충하는 현상을 낳게 하는데, 과연 이러한 현상을 목도하면서 문학이란 것을 가르칠 수 있는지 은근 회의가 밀려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의 본질을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우려들은 문학과 교육의 일부 대치되는 속성에 따른 것으로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학이 세계의 모방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을 체득할 수 있으므로 자라나는 청소년 학습자들에게는 교육적 가치가 충분히 있으므로 의당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규범 아래 문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문학교육이 흘러가야 함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문학교육의 목표 적정화는 바로 그러한 방향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목표의 적정화라고 하면 적정성의 일반적 개념에 따라 양적 접근을 통해 문학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범주 조건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문학이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적정성은 양적 개념뿐만 아니라, 질적 개념까지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문학교육 목표의 적정성은 재개념화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의 진전을 고려한 질적 접근을 통해 문학교육의 이념과 교육의 이데올로기를 견제할 수 있는 메타적 기능의 목표 실현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교육 목표의 적정성 문제에서 목표의 범주와 같은 양적 측면을 넘어 질적 측면에 대한 논의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이 논의의 한계로 남는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다른 기회를 통해 전개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교육인적 자원부,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1997.
- 교육인적 자원부, 국어과 교육과정, 2007.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서울대출판부, 2007.
-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삼지원, 2006.
- 김상옥, 「문학교육 목표 규정을 위한 시론」, 국어교육연구vo.1, 1994.
- 김중신, 「문학교육 쟁점과 과제」, 청람어문교육29집, 2004.
- 김창원, 「문학교육과정 설계의 절차와 원리」, 국어교육77, 1992.
- 김창원, 「문학교육 목표의 변천 연구(Ⅰ)」, 국어교육73, 1991.
- 길형석 외, 『교육의 이해』, 교문사, 2006.
- 남민우, 「문학교육 목표 변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학교육학 제22호, 2007.
- 송현정, 「국어과 교육내용 적정성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121, 2006.
- 송지현, 『문학교육의 본질과 방법』, 푸른사상, 2003.
- 우한용, 「문학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탐색」, 문학교육학 제20호, 2006.
-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우한용 외, 『실용과 실천의 문학교육』, 새문사, 2009.
- 최미숙 외,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08.
- 최지현, 『문학교육과정론』, 역락, 2006.
- 한용환, 『소설의 이론』, 문학아카데미, 1995.
- 황규호, 「교육내용의 적정화 기준 탐색」, 교육과정연구22, 2004.
- 제임스그리블, 나병철 역, 『문학교육론』, 문예출판사, 1987.

〈Abstract〉

The Critical Study about Appropriateness of Objectives of Literature Education

- Focusing on the High school Literature Curriculum -

Hansung, Jeon

What is the aims and objectives of Literature education? If the purpose of education means just teaching something, "Objectives" would be the design of systematic curriculum to reach such aims. For this reason, the setting of aims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as it must be since the aims are connected to the design of systematic curriculum.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7th curriculum of Literature with the revised 2007 curriculum of Literature on the basis of appropriateness of aims. From the study, some problems were revealed. First, the confusion of aims and objectives was existed. Second, the inconcinnity of the domain of Literature education and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s aims in terms of articulation was found out. Third, there is no reference about connection of other subjects, and there is no deficiency of the systematic statement about objectives. Finally, the repetition statements of objectives was the one of the problems as well.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four alternatives through approaching quantitative method for appropriateness of objectives of Literature education. First, the statements of Objectives should be systematic pursuing aims. Second, Ideology(directivity) should be presented in consideration with the emphasis on objectives of Literature

education. Third, the category of objectives should be reconstruct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coherence, articulation, and sequence for the systematization of objectives. Fourth, the contents of objectives should be simple and clear. Appropriateness of objectives of Literature education should be accomplished not only through the approach of quantitative method but that of qualitative method. In so doing, ideology and directivity of Literature education, introspective function about human life will be reinforced.

Keywords : Literature education, the curriculum of Literature, aims, objectives, appropriateness, coherence, articulation, sequence

이 논문은 2011년 1월 14일에 투고되었으며, 2011년 2월 10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1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